

■ 개인택시 1호 장일식·이복신씨의 '광주 개인택시 30년'

## "처음엔 주머니 터지게 돈 벌었죠"

30년 전 광주 지역 개인택시 운전 사들은 기름값 빠고도 하루 최고 3만원을 벌었다. 광주 번두리 땅 3평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사장'이라는 호칭도 낯설지 않았다.

4일 현재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하루 순수입은 3만~5만원. 액수로만 따지면 30년 전과 엇비슷하다. 하지만 당시 200~300원이었던 자장면 값을 감안하면 차이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제는 한 달을 모아도 땅 1평 사기 힘들다.

5일은 광주에 개인택시가 선보인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의 개인택시 1호 운전사인 장일식(69·광주시 북구 삼각동)·이복신(60·북구 광천동)씨는 광주 전역을 누비고 다니며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아련하기만 하다.

이들은 지난 1977년 5월 5일 전남 도가 첫 실시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험에 최종합격, 광주의 개인택시 1호 운전사가 됐다.

"운전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1천여 명이 넘어 요즘 복권 추첨하듯이 통 안에서 번호가 새겨진 공을 뽑아 개인택시 면허를 줬습니다. 광주 60명, 전남 75명이 각각 선발됐는데 개인택시 운전사의 인기가 하늘을 찔라, 젊은 처녀들이 노골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할 정도였죠."

장일식씨는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기본요금이 160원이었는데도 일이 끝날 때쯤엔 주머니가 터질 지경이었다"며 "첫해에는 손님이 하도 많아 돈을 깎아서 굳다 시피 했고, 돈 육십부리던 6명의 동료가 짐을 지지 않고 며칠째 운전하다 과로로 숨진 정도였다"고 기억했다.

자가용이 드문 시절, 신히이고 깨끗했던 개인택시는 신혼부부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이복신씨는 "요새는 하니문 카가 다양하지만 그때



광주의 첫 개인택시 운전사인 장일식(69·오른쪽)·이복신(60)씨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겠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 돈 육십 짐 안자고 운전 6명 과로死

택시안에서 광주 역사·애환 함께해

### 60명 중 4명 남아 시내 누비며 운전

만 해도 결혼 전 개인택시를 예약하는 신혼부부가 대부분이어서 휴일이면 색실 등으로 차를 꾸미는 게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운전한 차종은 국내 승용차의 역사와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씨 등은 나란히 1977년 기아 '브리샤'를 첫차로 선택했고, 이후 현대의 '포니'(1980년), '포니 2'(1983년)로 갈아탔다. 이어 '프레스토' (1987년·현대) '콩코드'(1990·기아) '크레도스'(1995·기아) '옵티마'(2004·기아)를 운전하고 있다.

이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는 개인택시 조합이 있던 신안동

에 시민군들이 찾아와 차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막걸리를 사주며 달랜 적도 있었다"면서 "87년 6월 항쟁 때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다는 핫소문이 돌아 일부 시민이 개인택시를 밟아 차 애를 먹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지난 1980년 후반에 극성을 부리던 택시 강도에 대해서도 장씨는 "지산유원지 인근에서 2명의 택시 강도와 봄싸움을 벌였는데 범인들이 도망가면서 급했던지 짐을 현장에 떨어뜨려 다음날 경찰에 잡혔다"고 웃었다.

이발소·복터방 등과 함께 그 어려웠던 시절, 지역 여론의 통로였던 개인택시 안에서 보낸 반생생의 삶. 이씨는 "승객들이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치관련 발언을 전혀 못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 등으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며 "요즘 정치 이야기를 하는 승객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살기 꽉꽉하다'는 말뿐이다"고 말했다.

광주의 첫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 60명 중 지금도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사람은 4명. 이들은 "하루 벌어 생활비 대기로 힘들다. 정부에서 택시 운전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LPG 보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한편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이사장 최형섭)은 5일 광주개인택시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금껏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장일식·이복신·김종화(63)·김재선(73)씨 등 4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오픽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미 FTA 비관 경북 농민

### 공기총 쏴 3명 사상

씨와 노씨의 아들(22), 이웃주민 이모(43)씨에게 발사했다.

이 사고로 노씨가 가슴 부위를 총에 맞아 숨지고 군에서 휴가를 나와

있던 노씨의 아들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한우 50여 마리를 키우며 마을 농민회 회장으로 활동해온 이씨는 최근 FTA 타결을 비관해 왔고 이날 신세한탄을 하던 중 "다함께 죽자"며 직경 5.0mm 짜리 공기총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또 노래방 강도 여주인에 칼부림

### 광주 열한번째...경찰 속수무책

경찰이 연쇄 노래방 강도를 겨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또다시 11번째 노래방 강도가 터졌다.

이번에는 용의자가 흥기로 주인까지 치르고 달아나는 등 범행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어 경찰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4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모 건물 지하 1층 D 노래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침입해 주인 황모(51·여)씨를 위협하고 황씨의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황씨가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다 용의자가 휘두

른 흥기에 허벅지를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두색 사파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갑자기 실내로 들어오더니 흥기를 빼 들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동안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10차례의 노래방 강도 용의자와 동일범으로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각 경찰서 별로 '노래방 강도 겨우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특진과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연쇄 노래방 강도를 겨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실연' 20·30대 여성 잇따라 자살

애인의 결별 요구에 고민하던 20대와 30대 여성들이 잇따라 숨졌다.

4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C아파트에 사는 민모(여·28)씨가 베란다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자 친구인 이모(3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민씨에게 지난 20일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민씨가 이후 친구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고 내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3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M아파트 11층에 사는 주부 천

모(여·32)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함께 있던 내연남 박모(43)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남편이 눈치챌 것을 염려해 결별을 선언하는 10장 분량의 편지를 건넨 뒤 거실을 나서려는 순간, 천씨가 베란다에서 투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숨진 천씨의 눈 주위에 명자국이 있는 등 유가족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 앞바다 4.6m 식인상어 포획  
○~4일 오전 10시께 여수시 남면 연도 남쪽 0.5마일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조선현(48)씨가 길이 4.6m·몸 둘레 1.4m 크기의 식인상어인 백상아리(white shark·사진) 1마리를 포획.

양씨는 다리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부인을 수발하는데, 벌이도 없어 처가·친척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을 평소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양씨가 부인을 살해 암매장 한 후 자신도 음독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섰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여수=강성훈기자 kangsw@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아내 살해 암매장 60대

### 자신도 음독 자살

인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라 행방을 주적, 텃밭에 암매장된 부인의 사체를 찾았다.

양씨는 다리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부인을 수발하는데, 벌이도 없어 처가·친척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을 평소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양씨가 부인을 살해 암매장 한 후 자신도 음독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섰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여수=강성훈기자 kangsw@